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 오늘 오후 2시 한국 VS 대만 올림픽 야구 예선 1차전 - 김경문 감독 필승 결의

"공격야구로 4점이상 뽑겠다"

"선발투수는 전병호·박찬호·류제국 중 한명"

김경문 야구 대표팀 감독〈사진〉이 1일 대만과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 1차전에서 최소 4점 이상을 뽑는 적극적인 공격 야구로 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30일 대회가 열릴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훈련을 갖기 전 "대만 선발 투수가 좌투수이든 우투수이든 개의치 않는다. 선취점을 최대한 일찍 뽑고 최소 4점 이상 득점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점 이상을 뽑기 위해 김 감독은 강공과 번트 전략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는 "타자 컨디션을 고려, 자신 있다면 강공, 자신 없는 표정이라면 번트 등을 구사해 방문팀으로서 선취점을 최대한 일찍 뽑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결전을 하루 앞둔 이날 김 감독은 "마운드 구상과 주전 라인업을 확정해 고민이 끝났고 마음은 편하다"며 "선발투수가 5회까지만 던져준다면 불펜을 총동원 지키는 야구로 승리하겠다. 초반부터 불펜을 풀가동할 참"이라고 전략을 밝혔다.

여전히 대만전 선발 투수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전병호, 박찬호, 류제국 등 세 명 중 한 명일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날 파키스탄과 홍콩이 벌인 B조 야간 경기를 관전하며 현장 분위기 파악에 나섰던 김 감독은 "외야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게 불어 수비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야수들로 하여금 '콜 플레이'에 신경쓰도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에 이기려 왔다"며 포부를 밝힌 주장 박찬호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에 나온 대만 선수들의 얼굴을 익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만이 힘이 좋아 공을 최대한 낮게 뿌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로 가는 길에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합숙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야구'의 선봉장 이종욱은 "감독님으로부터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린라이트'를 부여 받았다. 선구안을 높여 출루에 신경을 쓰겠다. 대만 투수들의 제구력은 물론 야수들의 송구 능력도 썩 좋지 않아 출루를 높이고 실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허벅다리걸기 한판승 지난달 30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마사회(KRA)와 대한유도회 공동 주최 '2007 KRA컵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 +100㎏급 준결승전에 출전한 김수한이 쿠바의 비달 오스카 브라 선수를 상대로 허벅다리걸기 공격으로 한판을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한국야구 올림픽 대표팀 공개연습에서 김경문 감독이 마운드에 직접 올라 높이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구장 마운드 너무 높아 '승패 변수'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전이 열릴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털 구장 마운드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 투수들의 투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타이중 구장에서 훈련하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인터컨티넨털 구장 땅을 밟은 김경문 대표팀 감독과 선동열 수석코치는 혀를 내둘렀다. 김 감독은 "예전 한국 구장 마운드 높이보다 훨씬 높다.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선 코치도 "투수들이 놀랄 정도로 마운드가 높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는 오버핸드 투수는 볼의 각도가 커 유리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볼을 때리는 타점이 높아 제구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일본과 대만에 참패했던 한국 야구는 투고 타저 현상을 타파하고 국제 공인 규격에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마운드 높이를 기존 13인치(33㎝)에서 10인치(25.4㎝)로 7.6㎝ 낮췄다.

그러나 인터컨티넨털 구장 마운드는 한국 구장이 예전에 사용했던 13인치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돼 낮은 마운드에 익숙했던 대표팀 투수들이 릴리스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대만이 홈 어드밴티지 효과를 톡톡히 이용한 것으로 대만에 비해 투수력이 우수한 한국, 일본 마운드를 무력화시키고 높게 제구되는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로 연결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전남 "내일 꼭 2연패 달성"

FA컵 축구선수권 결승 2차전

포항 상대 비기기만해도 우승

'제철가 형제'인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가 2007 한국축구 마지막 결투를 벌인다.

포항과 전남은 2일 오후 3시 포항스틸야드에서 2007 하나은행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 2차전을 치른다. 다사다난했던 2007 한국축구를 마무리하는 경기다.

특히 1992년 이후 15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차지한 포항이 FA컵까지 거머쥐며 사상 첫 '더블 크라운'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지난해 우승팀 전남이 대회 첫 2연패를 이루느냐가 가려지는 중요한 일전이다.

일단 전남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서 있다. 전남은 지난 2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홈 1차전에서 3-2 재역전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허정무 전남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무장에 신경 쓰고 있다. 1차전 승리로 느슨해질 수도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우승의 관건이라는 생각에서다.

반면 K-리그 막판부터 챔피언결정전까지 파죽의 7연승을 달리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포항은 설욕을 자신하고 있다.

포항과 전남은 올 시즌 K-리그에서 두 차례 맞붙었는데 각각 홈 경기 때 1승씩을 나눠 가졌다.

포항은 경고 누적으로 1차전에 뛰지 못했던 오른쪽 미드필더 최효진이 가세해 왼쪽 박원재와 함께 다시 팀의 강점인 측면 공격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스리백의 한 축을 맡아온 조성환이 경고가 쌓여 나서지 못한다. 2006년 전남에서 이적해 온 이창원이 조성환의 빈 자리를 메우며 친정팀의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1차전에서 침묵했던 선발 투톱 고기구와 슈벵크, 그리고 특급 조커 이광재는 다시 득점포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선주, 日 에이스 요코미네 맡아라"

8회째를 맞는 교라쿠컵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한국팀 주장을 맡은 김미현(30·KTF)은 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뜻밖의 대진표를 제출했다.

일본 선수 가운데 한일전에서 가장 빼어난 성적을 올렸고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상금 2위를 차지한 요코미네 사쿠라의 상대로 안선주(20·하이마트)를 낙점했다.

일본 상금왕 우에다 모모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교육 참가 때문에 불참, 일본팀에서는 요코미네를 에이스로 꼽고 있다. 특히 요코미네는 지금까지 한일전에서 5승무패의 전적을 올린 '한국 킬러'로 일본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다.

'일본 에이스 저격수'로 선정된 안선주는 이번이 한일전 첫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올해 세 차례 우승을 따내며 상금랭킹 3위에 오른 안선주를 맞

한일 女프로골프대항전 대진 확정

〈안선주〉

〈요코미네〉

상대로 내세운 김미현은 "장타력과 쇼트게임 실력을 두루 갖춘 안선주가 충분히 요코미네를 잡아줄 것"이라고 여유만만이다.

안선주도 "작년에는 대표팀에 뽑히지 못해 아쉬웠다"며 "마침 최강의 상대를 만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김미현은 또 일본팀 주장인 베테랑 요네야마 미도리를 한국팀 막내 신지애(19·하이마트)에게 맡겼다.

31세 요네야마는 평균 연령 23.77세에 불과한 '젊은 팀'으로 변신한 일본팀 가운데 최고참이며 6차례나 한일전에 출전해 6승1무2패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신지애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그가 올해 한일전에 출전한 양팀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 8위로 가장 높은데다 세계 무대에서도 이미 검증된 기량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닐 수 없다.

어깨 부상에 오른쪽 눈에 결막염까지 겹쳐 컨디션이 최악이지만 "1라운드는 반드시 출전하겠다"고 투혼을 발휘한 박세리(30·CJ)는 일본 상금랭킹 5위 모로미자토 시노부를 상대한다.

스포츠 유게

1일(토)

▲NBA 〈보스턴 : 마이애미〉(10 : 00·MBCESPN)

▲NHL 〈애너하임 : 에드먼턴〉(10 : 55·SBS스포츠)

▲대학장사 씨름 장사급(13 : 00·MBCESPN)

▲2008 북경올림픽 야구예선 〈한국 : 대만〉(13 : 50·KBS2)

▲프로농구 〈삼성 : LG〉(14 : 50·X-ports), 〈KTF : 전자랜드〉(14 : 50·SBS스포츠)

▲V리그 〈현대캐피탈 : 삼성화재〉(15 : 00), 〈흥국생명 : KT&G〉(17 : 00·KBSNSPORTS)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 KB국민은행〉(16 : 50·SBS스포츠)

▲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선수권 준결승(18 : 50·SBS스포츠)

"이천수 11일께 팀 복귀"

페예노르트, K-리그 U턴설 일축

시즌 중 일시 귀국으로 K-리그 복귀설까지 제기된 이천수(26)에게 소속 팀인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가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줬다.

페예노르트의 피터 보스츠 기술이사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유력지 '알헤메네 다흐블라드'와 인터뷰에서 "이천수가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해 둔 상태다. 그는 다음달 11일 데 퀴프(페예노르트 홈 구장)에 도착한다고 약속했다"며 이천수의 K-리그 U턴 타진설을 일축했다.

이천수는 감기와 장염 증세로 인한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 일시 귀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스츠 기술이사는 "이천수와 미팅을 했는데 빠른 컨디션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상태 호전을 기대하며 어렵게 2주 휴가를 승낙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천수를 영입하기 전에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딕 아드보카트와 핌 베어벡 감독이 추천해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천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주	3,500	클럽900	6,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함평	7,400

상담문의 (062)351-0095